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2

2

기획특집

한우산업 회생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한우산업은?

Focus

한우암소감축장려금 지원사업 세부 시행방침
달라지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Zoom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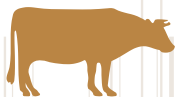
농경연, 2012년도 한우산업 전망
원산지표시제 강화

5천년 우리 역사를 지켜줄
튼튼한 이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땅위의 자존심 한우



C·O·N·T·E·N·T·S

기획특집 1	02-04
한우산업 회생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기획특집 2	05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한우산업은?	
Focus 1	06
한우암소감축장려금 지원사업 세부시행	
현장르포	07
한우암소감축장려금 농가설명회 현장을 가다	
Focus 2	08-09
달라지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Zoom In 1	10-11
농경연, 2012년도 한우산업 전망	
Zoom In 2	12-13
원산지표시제 강화	
애독자 코너 & 전문점 소개	15



한우산업과 한우농가 생존권 보장하는 실효성있는 FTA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게 불과 얼마전인데 이제는 한·중 FTA까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벼랑 끝에 몰린 축산인들에게는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해 보입니다.

한우산업은 단순한 먹을거리 산업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산업이고 국가 안보 산업입니다. 한우산업과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획특집 11 한우산업 회생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한우산업 회생 비상대책위원회 ▶▶

대정부활동 주도적 추진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위해 활동

비대위원장에 박병남 충북도지회장

민경천 전남도지회장 공동대표 추대

“

지난달 5일 진행된 청와대 한우반납운동에 이어 적극적인 대정부 농정활동에 나설 한우산업 회생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구성됐다.

이번에 구성된 비대위는 전국한우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대정부활동이 회장단 선거 등 협회 내부 현안으로 차질을 빚기 쉬운 상황임을 고려해 향후 일관적인 대정부활동과 필요시 강경투쟁 등 향후 한우산업과 관련한 대정부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각 도에서 1명씩 추천받아 구성된 비대위는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고 박병남 전국한우협회 충북도지회장과 민경천 전남도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한우산업의 당면현안과 원인을 분석, 대책마련에 나섰다.

”



한우산업의 쟁점과 요구사항

비대위는 한우산업의 당면현안을 '소 값 및 송아지가격 정상화'와 'FTA대비 한우산업 회생대책'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대책을 아래와 같이 설정해 한우산업 회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① 농가소득 안정화기금(목적세)마련

먼저 FTA로 인한 생산감소액은 해마다 6,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미국, 호주, 캐나다 3국에서 쇠고기 수입량이 30% 증가 4,380억원이 감소하고, EU의 돼지고기 수입증가로 1,620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산업간 동반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부합시켜 FTA 피해산업인 축산업을 위해 피해산업 지원을 강구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농축산물 수입관세 중 50% 이상을 해당 품목 가격안정화 기금으로 전입해 해당분야의 경쟁력제고에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목적세를 요구하고자 한다.

② 직불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안정망 확충

한-칠레 FTA 이후 도입된 피해보전직불제는 조수입이 20%감소해야 지원가능해 도입된 사례가 없다. 우선 7년이라는 한시성과 점진적인 관세인하 등을 감안하면 조수입이 20% 이상 줄어들기 쉽지 않아 농가에게 부담이 된다. 이에 비대위는 현실적인 제도로 개선시키고자 기준가격을 100%

요구하며 소득보전율도 종전 90%에서 95%로 상향시키며 유효기간도 관세철폐 후 5년까지 연장시키고자 요구한다.

③ 축산시설(생산성 향상)지원확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TMR시설 지원과 TMR원료 물류기지 지원사업을 요구하되 예산보조기간은 한·미 FTA관세 철폐시기를 감안해 관세철폐 시까지 지원해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④ 사료안정기금 설치 및 해외자원 개발

연이은 사료 값 상승으로 농가의 부담이 큰 만큼 배합사료 안정기금 설치 및 원료곡 비축관리제도 등을 운영해 배합사료 구매 부담을 덜고 자급조사로 기반확대와 해외사료 자원개발 지원 등을 요청해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대책을 함께 준비하고자 한다.

이밖에 중부권(대전) 상장 도축장을 마련하고, 암소브랜드 활성화 대책과 한우를 구분하고자 판매장 매대 이원화 및 단속 시 처벌기준 하한제를 도입하고, 축산물 최저가격 보상제와 경영 안정을 위한 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획특집 11 한우산업 회생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실질적 대책 마련 시급

비대위는 한우산업이 처한 위기와 실질적인 대책을 알리고자 지난 달 31일 농식품부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전반적으로 농가가 생산비를 낮추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한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해 나갈 것이라 답변했다.

유통·판매관련

한우가격 할인의 기준 역할을 해야 하는 농·축협 판매장이 유통마진이 많다는 건의에 대해 전국 대형마트의 가격을 취합해 기준을 설정하고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장을 확대하고자 대도시 및 구청등과 연계해 추진하며 생산자 단체 직접 판매를 위한 특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사료 관련

사료구매자금 상환은 연기했으며 해외자원개발을 정부차원에서 주도해 사료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려 한다. 또한 국내 조사료 활성화를 위해 영농조합 및 경영체의 TMR 생산을 위해 조사료 쿼터 지원을 검토

축산정책 및 지원방안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은 농가의 참여를 손쉽게 하기 위해 농신보의 문턱을 낮출 것이며 암소도태장려금을 지원할 것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수매는 시장격리할 방안이 어려우며 북한에 보내는 것 또한 국내외 여건상 지원하기 어렵다. 그밖에 비대위는 가축개량을 통해 우수개체 유도와 종모우 생산에 대해 지원을 요구했으며 송아지를 비육해 출하하는 생축장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개선

비대위의 향후 활동방향은

이번에 구성된 비대위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경쟁력강화 대책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부문별 한우산업 정책 연구, 유통연구, 기획·홍보 등 분야에 맞는 경쟁력 강화대책을 모색해 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민정천 한우산업 회생 비상대책 위원장은 “우리가 지금 나신 목적은 부채탕감 등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한민족과 함께 가야할 한우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실패한 정책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개방화 시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한우산업과 한우농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㉞





기획특집 21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한우산업은?



한우 저급육 실질적 피해 우려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 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20일 캐나다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했다. 이로써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중단된 지 9년만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된다.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면 수입업자는 곧바로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어 배를 통해 수입하는데 2~3주, 검역절차가 보통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달 말부터 시중에 풀릴 가능성도 있다. 수입쇠고기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국내 축산물 시장, 한우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한우소비 외치더니,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

한우협회는 지난 20일 정부의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관보에 게재하자마자 성명서를 발표해 캐나다 쇠고기 개방을 반대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가 국회 의견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캐나다 수출작업장 선정까지 마쳤으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반대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졸속적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며 규탄했다. 또한 “정부는 한우값 폭락으로 언론에는 특단의 소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것은 한우농가를 기만한 것으로 강경 투쟁도 불사한다”고 뜻을 밝혔다.

수입쇠고기 경쟁, 수입육 시장 확대 불러올 수도

캐나다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 진출은 가장 먼저 수입육 시장의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수입금지 이전 4%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런 쇠고기 수입증가로 이어지

진 않았지만 이미 국내로 수입하고 있는 미국, 호주산 쇠고기와 경쟁이 심화되면 수입쇠고기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캐나다측에서 구이용 중심으로 음식점 시장을 잠식해 나갈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대체품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한우 저급육 피해 우려, 고급육으로 경쟁력 확보

한편 수입쇠고기로 인해 한우저급육과 육우, 돼지고기의 직접적인 피해도 우려된다.

한우자조금 발주로 GS&J인스티튜트에서 연구한 ‘한우의 류별 및 등급별 수요변화와 비육전략 수립’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육 10% 증가 시 한우고기 3등급과 육우의 수요를 일부 대체해 각각 0.4%, 2%가량 가격이 하락하지만 수요는 오히려 한우 고급육으로 집중되어 가격이 0.7~0.8%정도 미미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결과는 수입쇠고기가 대부분 저급육임을 전제해 것으로 추후 고품질 쇠고기가 냉장 수입될 경우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은 “한우고급육의 품질은 수입쇠고기가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가 고급육 생산에 매진한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한우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정부가 수입육시장과 한우시장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㉞



3월부터 300억원 들여 암소 10만마리 도태 경산우 30만원 · 미경산우 50만원씩 장려금 지급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일 '한우암소감축장려금 지원사업' 세부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한우암소 10만마리를 감축하고자 3월부터 300억원을 투입해 경산우는 30만원, 미경산우는 5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저능력우, 미경산우, 45개월령 경산우 감축대상

한우 암소 감축은 현재의 암소 마리수를 분석해 2~3년후 사육두수 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한우로써의 자질이 떨어지는 개체를 선별 도태함으로써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호해 한우산업을 안정화시키고자 실시한다.

우선 감축 대상우는 이모색, 흑비경이 있는 경우와 도체등급 판정결과 2등급이하의 거세수소를 분만한 암소 중 60개월령 이내(1월 31일 기준)로 연말까지 출하 가능한 암소이다. 미경산우는 농가가 지역축협과 출하계약 약정 시 12~18개월령 암소 중 송아지 생산기록이 없는 암소로서 24개월령 이내로 연말까지 출하가 가능한 암소이며 또한 외과적 처치 등에 의해 영구불임을 입증하는 수의사 확인서 제출 시 내년말까지 출하가 가능하다.

경산우는 농가가 지역축협과 출하계약 약정 시 19개월령 이상인 암소 중 송아지 생산 기록이 있는 암소로서, 45개월령 이내로 연말까지 출하가 가능한 암소가 해당된다.

특히 이들 암소 중 이모색, 흑비경 등 외모가 불량하거나 후대축 2등급이하 수소의 어미, 유

전능력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암소, 저체중 암소 등을 우선 도태시킨다.

'감축대상 암소 선정협의회' 운영

감축대상 암소를 선정기 위해 시·군·구별로 '감축대상 암소 선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회는 시·군 담당자, 지역의 개량전문가(육종전문가, 수의사, 수정사 등), 축협, 축산물품질평가원, 종축개량협회, 한우협회 등 7인 내외로 구성되며, 농가에서 신청한 개체를 조사하기 위한 현장점검반도 운영하게 된다.

협의회는 3월 중으로 대상개체를 최종 선정해 해당 농가와 축협에 통보해야 한다.

2월 29일까지 지역축협에 암소 감축 신청

암소감축 희망농가는 해당 시·군에 이달 29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역축협은 감축대상암소에 대해 해당농가와 출하약정서를 작성 후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감축대상 암소 도축 시 해당농가는 지역축협에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역축협은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도축 여부를 확인 후 장려금을 지급하면 된다. ㉞

◆ 계약 및 출하월령

구분	장려금 (두당 단위)	계약월령	출하월령	지원제외
미경산우	50만원	12~18개월령	24개월령 이내	· 경산우 대상 중 불임우 · 도축검사시 불합격 · 이력시스템 정보 변경
경산우	30만원	19개월령 이상	45개월령 이내	





현장르포 | 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 설명회 현장을 가다

암소 감축 장려금 무엇이 문제인가

장려금 지급 날짜 · 선정방식도 몰라 ‘발만 동동’

현장점검반 · 장려금지원대상축 선정협의회까지

농가 사업홍보하라, 장려금 지급하라... 공정한 업무추진이 과제

“아무리 조합원을 위한 사업이라해도 이걸 너무 한거 아닙니까. 축협에서 현장점검반도 뛰고 감축대상 암소 선정협의회도 들어가고 홍보와 접수, 장려금 지급까지 다 책임지라카면 우리보고 우짜라는 건가 모르겠네. 이래놓으면 결국 농가들 불편하고 축협직원들은 욕만 먹는 기라예.” 지난 9일 농협안성교육원에서 열린 암소감축장려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듣다가 나온 경북지역의 한 축협직원은 모든 업무를 일선 축협으로 넘기는데 불만을 표했다. 축협직원들이 조합원들을 위해 장려금 지원사업을 도맡아 할 수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대로라면 농가에선 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힘들고 신청 등의 절차에서 불편하고 축협직원들은 지도계 업무가 마비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암소감축장려금 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일까? 일선 축협직원들과 농가의 얘기를 들어봤다.

일선축협 - 충분한 자원보강 있어야

암소감축장려금 지원사업은 예산이 300억원 규모인데 이를 일선 축협 100여 곳에서 관할지역에 따라 맡아서 분배해야한다.

이에 따른 문제는 소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경북, 충남의 일부축협의 경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계약으로 인해 지도계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인데 농가의 문의가 쇄도할 암소감축장려금 지원사업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점검반이나 감축대상 암소 선정협의회를 하려면 유지비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책정되지 않아 무료봉사를 요청해야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충남의 한 축협직원은 “조합의 지도계가 암소감축장려금 지원사업 때문에 정상업무가 마비된다면 결국 그 불편은 농가로 돌아가게 된다”며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적당히 업무를 분배해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가 - 홍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축협직원들의 반발과는 달리 농가에선 홍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이다.

지난달 청와대 한우반납운동 이후 연이어 대책이 발표가 되고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2월 중순인 지금까지 아무런 안내가 없어 어찌해야할 지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특히 장려금이 지원되더라도 그 대상축의 선정방식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안내조차 없으니 감축대상축 선정협의회에서 알음알음 자신들이나 지인들의 소부터 지원대상축으로 선정하는 것 아니겠냐는 탄식어린 반응도 나왔다.

경남의 한 농가는 “TV에서 도태장려금 나온다고 떠들어대더니 아직까지 함흥차사”라며 “구체적인 날짜라도 알려준다면 기다리길래도 할텐데 비육 다된 암소를 언제까지 먹여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상축 선정에 관한 기준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협의회에서 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협의회에 선정된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 중심으로 선정되지 않겠냐”며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준다는 희망에 선불리 도축장으로 보내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



가임암소 적정수준 초과시 지급중단 논란

정부, 사육두수 따라 차등지급

6~7개월령 송아지 기준 185만원으로 책정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소 사육마리수는 305만3,000여마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격 또한 급락해 수소 한 마리(600kg)가격이 473만9,000원까지 떨어져 최근 8년새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일, 소 사육두수를 줄여 장기적으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자 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로는 가임 암소의 사육규모에 따라 보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적정두수(가임암소 90~110만두)보다 적을 때에는 보전금을 기존 제도보다 확대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 사육두수와는 관계없이 송아지 가격(4~5개월령)이 안정 기준가격(165만원/두)이하로 하락하면 두당 최대 30만원까지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 농가에 지원했으나 이제부터 송아지 가격(6~7개월령)의 안정 기준가격(185만원/두)도 변경되고 사육 두수에 따라 차등 및 미지급된다.

또한 송아지거래가격이 4~5개월령 송아지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6~7개월령 송아지 매매가격이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㉞

송아지생산안정제 변경안

구분	현행	개선				
		단계	확대	적정	위험	초과
차액보전액	30만원	가임암소(만두)	90미만	90~100	101~110	110이상
		최대보전액(만원/마리)	40	30	10	0

송아지 생산시기	기존4개월령 도달기간(기)	변경6개월령 도달기간(기)
1. 1~2월말	5. 1~6. 30(37)	7. 1~8. 31(47)
3. 1~4. 30	7. 1~8. 30(47)	9. 1~10. 31(57)
5. 1~6. 30	9. 1~10. 31(57)	11. 1~12. 31(67)
7. 1~8. 31	11. 1~12. 31(67)	익년 1. 1~2월말(17)
9. 1~10. 31	익년 1. 1~2월말(17)	익년 3. 1~4. 30(27)
11. 1~12. 31	익년 3. 1~4. 30(27)	익년 5. 1~6. 30(37)

농가입장

박병남 한우산업 회생 비상대책위원장

송아지생산안정제 유전자원 · 생산기반 보호 반드시 존속돼야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존속돼야 하는 제도입니다. 비용의 많고 적음을 떠나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우리나라의 유전자원을 보호하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박병남 한우산업 회생 비상대책위원장은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논의를 떠나 우리의 유전자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지적하며 운을 뗐다.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시한 생산안정제 개편안에 따르면 적정가임암소마릿수에 따라 생산안정자금이 차등지원 되는데 박 위원장은 적정가임암소마릿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추산하기 힘들다는 점을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사람들의 입맛이 서구화되며 축산물 소비량이 증가해 쇠고기 소비량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를 반영치 않고 일괄적인 기준으로 생산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인 수급문제에 미뤄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적정사육마릿수가 왜 90~100만두가

적정가임암소마릿수 추산 문제점 지적

최대 보전금액 및 지원기준 설정 검토해야

돼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일절 없이 이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쇠고기 자급률 목표가 우선 설정되고 이에 맞춰 해마다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쇠고기 소비량을 검토해 적정사육마릿수가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소비량에 비해 적게 공급된다면 한우가격이 상승하지만 이는 곧 한우가격 급상승으로 이어지고 수입육 확대를 불러와 쇠고기의 자급률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유지되는 틀 안에서 개편은 수용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90~100만두가 적정가임암소 마릿수로 선을 그어놓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개편되는 송아지안정제에 대해 “6~7개월령을 기준으로 185만원이 기준가격이라면 최대 보전금액도 적정규모일 때는 50만원으로 설정하고, 그 이하일 때는 보전금액의 한도없이 지원해야 번식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번식의지를 가질 수 있다. 앞서 말했듯 적정사육두수도 90~100만두보다 탄력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우리나라 소비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좀 더 저렴하게 한우를 공급해야 하므로 90~110만두로 적정두수를 확대해야 하고, 110만두 초과 시에도 보전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Zoom In 1 | 농경연, 2012년도 한우산업 전망

송아지 생산마리수 전년보다 감소 암소 산지가격도 하락세 지속할 듯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전망 2012'를 통해 한우산업과 관련한 사육의향 변화와 가격동향, 향후전망 등을 밝혔다.



2012년 송아지 생산 마리수 감소

농경연에 따르면 2011년 한우 정액 판매량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219만 스트로우였다. 따라서 올해 송아지 생산두수는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하반기 암소사육 비육경영지수는 상승세로 전환됐다. 암소사육 비육경영지수 상승은 송아지 생산이 도축보다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올해 사육두수는 2011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급 낮을 수록 하락 폭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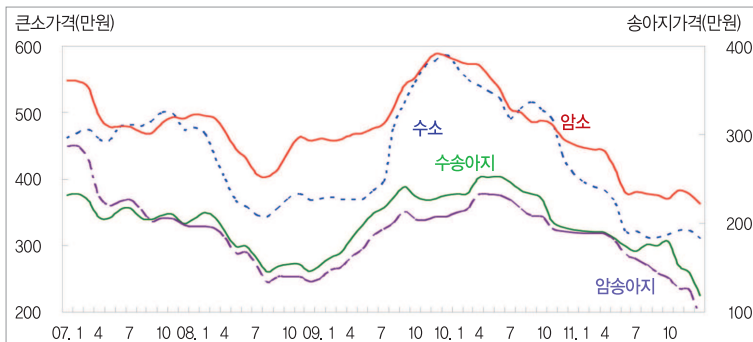
2009년 12월(589만원)을 정점으로 한우 암소 산지가격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2011년 한우(600kg 기준) 암소 산지가격은 379만원(2010년 보다 27.9% 하락), 4?5개월령 수송아지 169만원(29.3% 하락), 암송아지 145만원(33.3% 하락)이었다.

2011년 한우 산지가격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것은 연초 구제역 발생과 한우산업 장기 불황 가능성에 따른 불안 심리로 소 입식의향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1년 1++등급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16,701원(지육kg)으로 전년보다 17.7%, 1+등급은 14,618원으로 18.4%, 1등급은 13,219원으로 18.4% 하락했다. 2등급 (10,440원)과 3등급(7,841원)의 가격 하락폭은 전년 대비 20~32%로 나타났다.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등급이 낮을수록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도매시장보다 산지가격(우시장)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큰 소가 산지시장에서 거래되었기 때문이다.

◆ 한우 산지가격



* 주 : 한우 산지가격은 명목가격임.
※ 자료 : 농협중앙회, '축산물가격정보'

한우 도축이 증가하고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1등급 한우 등심 가격은 30,465원/500g으로 전년보다 17.2% 하락했다. 반면, 수입육(호주산 냉장 등심) 가격은 환율 영향으로 19,082원으로 전년보다 0.2% 상승했다.

한우 등심 가격 하락과 수입(호주) 쇠고기 가격 상승으로 한우 고기와 호주산(냉장) 쇠고기 평균 가격비는 전년(1.93배)보다 감소한 1.60배로 나타났다.

쇠고기 수급 전망

〈시나리오 구성〉

한육우 사육 마리수 증가로 한우 업계 불황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정부는 소비 촉진 행사와 병행하여 향후 2년에 걸쳐 암소 20만 마리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농경연은 암소 감축 물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한편 이번 시나리오는 2011년 9월 통계청 가축동향의 1세 미만 암소, 1·2세 미만 암소, 가임암소 구성비를 고려해 암소 감축 마리수 가정했다.

가. 한육우 사육 마리수와 도매시장 가격 전망

[기본안-암소감축이 없는 경우]

• 사육마리수 : 올해 한육우 사육두수는 289만 마리로 2011년(295만 마리)보다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번식위향이 감소함에 따라 2012년부터 사육 마리수가 감소해 2013년 283만 마리, 2017년 258만 마리, 2022년 250만 마리로 전망된다.

• 도매가격 : 사육 마리 감소 추세는 암소 감축 실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2016~2017년에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 증가로 2012년 전국 평균 한우 도매가격(원/kg)은 2011년 12,782원(459만원/600kg 환산)보다 5.6% 하락한 12,069원(434만원)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3년에는 11,781원(423만원), 2017년 12,739원(458만원), 2022년 13,612원(489만원)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 I -2년동안 10만두 감축할 경우]

• 사육마리수 : 올해 한육우 사육두수는 2011년보다 3.8% 감소한 284만 마리, 2013년은 274만 마리로 예상된다.

• 도매가격 : 적용된 시나리오는 감축된 암소고기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는 것을 가정했다. 올해 전국 평균 한우 도매가격은 2011년 12,782원(459만원)보다 7.3% 하락한 11,847원(426만원), 2013년은 11,601원(417만원)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 II -2년동안 20만두 감축할 경우]

• 사육마리수 : 올해 한육우 사육두수는 2011년보다 5.5% 감소한 279만 마리, 2013년은 265만 마리로 예상된다.

• 도매가격 : 올해 도매가격은 2011년보

다 9.0% 하락한 11,630원(418만원), 2013년은 11,425원(411만원)으로 전망된다. 암소 감축으로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이 늘어 가격은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암소 감축이 마무리된 2014년 이후 한우 도매가격은 기본안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쇠고기 수급 전망

[기본안]

도축 마리수 증가로 올해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1년보다 18.1% 증가한 25만5천톤으로 예측된다. 2013년 26만8천톤, 2017년 25만3천톤, 2022년 24만9천톤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등으로 쇠고기 수입량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11.1kg으로 예상되며, 2013년에는 11.6kg, 2017년 12.1kg, 2022년 12.7kg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 I]

암소 감축에 따른 추가적인 도축두수 증가를 적용할 경우, 올해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1년보다 23.4% 증가한 26만7천톤으로 전망된다. 2013년은 27만6천톤, 2017년에는 24만7천톤, 2022년에는 24만9천톤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 II]

올해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1년보다 28.7% 증가한 27만9천톤으로 전망된다. 2013년은 28만5천톤, 2017년에는 23만9천톤, 2022년에는 24만9천톤으로 전망된다. ☺

◆ 쇠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 천 톤(정육 기준))

		2011(추정치)	전망			
			2012	2013	2017	2022
기본안	생산	216	255	268	253	249
	수입	289	272	277	309	336
	1인당소비(kg)	10.7	11.1	11.6	12.1	12.7
시나리오 I	한우지육가격(원/kg)	12,782	12,069	11,781	12,739	13,612
	생산	216	267	276	247	249
	수입	289	267	272	312	336
시나리오 II	1인당소비(kg)	10.7	11.2	11.7	12.0	12.7
	한우지육가격(원/kg)	12,782	11,847	11,601	12,888	13,613
	생산	216	279	285	239	249
시나리오 II	수입	289	267	268	316	337
	1인당소비(kg)	10.7	11.4	11.8	12.0	12.7
	한우지육가격(원/kg)	12,782	11,630	11,425	13,040	13,617

* 주 : 한우 도매시장 정육가격 기준임.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지(KREI-KASMO 2011).

Zoom In 2 | 원산지표시제 강화

미산 원산지 위반 증가...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폭 강화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인터넷 포털사이트 공표 등

허위 표시 음식점 263건, 총 88톤 적발
서울 큰 폭 감소, 지속적인 단속 및 신고 필요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호주산 등으로 허위 표시하는 음식점이 지난해 263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 허위표

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건수는 263건이며 위반물량을 88.02톤으로 조사됐다.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물량은 2008년 16.8톤(114개 업소), 2009년 80.9톤(233개 업소), 2010년 212.6톤(283개 업소), 2011년 88.02톤(263개 업소)으로 원산지 표시제 시행 후 400여톤의 물량을 적발했다.

이 중 서울시는 2008년 1.8톤, 2009년 20.8톤, 2010년 159.4톤이었던 것이 지난해 19톤이 적발돼 큰 폭으로 감소

한 반면 경기도는 2008년 5.6톤, 2009년 9.8톤, 2010년 8.1톤, 2011년에는 20.2톤으로 조사됐다.

이에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관계자는 "광우병 발생을 비롯해 2008년 촛불집회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음식점 업주들이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호주산에 비해 20~30%가량 가격이 낮아 거짓으로 판매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위반업체 벌금 1억원, 인터넷에 공표 원산지 의문시 1588-8112로 신고

올해부터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음식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되는 원산지 관련법 개정예에 따라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될 경우 종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올해부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로 처벌 수준을 크게 강화했다.

또한 작년까지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양념육류)에 대해서만 식육종류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소내장과 머리고기, 사골, 잡뼈 등 모든 식육가공품에도 식육종류를 표시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3,000㎡이상 대형마트 등) 개설자에게도 입점업체의 원산지 거짓표시 관리의무가 부과되면서 입점업체가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점포 개설자에게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미국산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업소 및 위반물량

연도	위반업소(개소)	위반물량(톤)
2008	114	16.8
2009	233	80.9
2010	283	212.6
2011	263	88.0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과하도록 처벌 수준도 확대됐다.

한편 이전에는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에만 농식품부와 시·도 홈페이지에 위반사실이 공개됐으나 올해부터는 원산지 미표시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위반사실이 공개되며, 공개되는 인터넷 웹사이트도 기존 농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 외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포털(다음, 네이버) 등에도 확대 공표된다.

이에 따라 농·수·축산물 구매 시 또는 음식점에서의 표시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의문점이 있을 때는 주저 없이 신고(1588-8112)하는 시민정신이 요

구된다.

또한 하루 빨리 한우유통 투명화 정착을 위해 한우자조금은 지난해부터 한우 유통투명화 신고사례금을 신설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2배를 추가로 지급해 신고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농산물품질관리원 포상금은 최대 2백만원이었으나 지난해 한우자조금이 4배에 해당하는 8백만원을 추가 지급했으며 올해는 최대 2배인 4백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한우자조금 신고사례금이 첫 시행된 지난해에는 14명에게 품관원 포상금 13,700천원이 지급되어 한우자조금은 포상금 기준의 4배인 54,800천원을 별도로 지급했다. ㉸

한우로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지난달에 이어 지속적 전국 한우나눔행사 진행

한우자조금이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가 주관하는 '한우나눔행사'가 지난달에 이어 지속적으로 펼쳐져 사랑의 온정을 나눴다.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와 전남도지회는 지난 달 19일부터 각 시군 지부별로 도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한우고기를 전달했고, 강원도지회는 지난달 26일 강원도청에서 한우고기 전달식을 가진 후 각 시군지역을 통해 한우고기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경기도지회는 지난 6일 농협 경기지역본부에서 전달식을 가진 후 아동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전달했으며, 제주도지회는 지난 8일 제주축협 한우프라자에서 사회복지협의회 등을 통해 한우고기를 전달했다.



- ① 경기 ② 강원
- ③ 전북 ④ 전남
- ⑤ 제주



Information |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TV프로그램에는 한우만 보인다

한우자조금 아낌없는 지원으로 다양한 PPL 진행

한우자조금은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촉진을 하고자 PPL을 진행해 한우를 소재로 한 장면들이 TV 프로그램에서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큰 화제를 모았던 KBS미니시리즈<브레인>을 통해 한우 노출이 시작되면서 SBS저녁일일연속극인 <내딸꽃님이>에서는 극중 꽃님이네 식구와 홍단이네 식구가 한우를 구워먹으며 다른 소고기에 비해 올레인산이 풍부해서 한우가 맛있다는 표현으로 시청자들을 유혹했다. MBC시트콤<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서는 극중 계상이 하선네 식구들을 비롯해 온 식구들을 모아놓고 요즘 한우농가도 많이 어려운데 우리가 한우를 많이 먹는 것이 한우 농가를 돕는다는 취지로 한우파티를 통해 코믹한 에피소드로 시청자들에게 어필했다

한우자조금은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연령층의 드라마를 통해 어려운 농가를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과 한우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지식의 전달했다."라며 "SBS

주말<내일이 오면>, KBS미니시리즈<난폭한 로맨스>, MBC저녁일일<오늘만 같아라>, SBS미니시리즈<부탁해요, 캡틴>외에도 많은 드라마를 통해 한우홍보에 힘을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드라마 외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인기가 많은 아이돌 그룹 티아라와 틴탑이 깜찍발랄한 뮤직비디오 형식의 '한우송'이 SBS 인기가요 및 SBS 설특집 방송 배우팝스타 등 TV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되었다.

한우송은 귀에 착착 감기는 멜로디와 함께 '성장쑥쑥 영양 듬뿍 키가 커 우리한우 고갈습 고단백 피부짱 빛이나 꿀피부' 등 톡톡 튀는 노랫말로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한우를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편 지난 설을 맞이해 설특집 '출발 드림팀'을 비롯한 '도전 1000곡', '러닝맨', '1대100 스타퀴즈왕' 등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에 한우선물세트 등을 협찬, 한우선물세트를 두고 연예인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펼쳤다. ☺



▲ SBS 내 딸 꽃님이 (1, 20)



▲ KBS 2 출발 드림팀 시즌2, 설특집 씨름 최강자전 (1, 22)



▲ MBC 하이킥! 짧은다리의 역습 (2, 10)



▲ 티아라 한우송



▲ 틴탑 한우송





한우소식 이모저모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부익부 빈익빈' 우려
1% 저금리 불구 조건 까다로워... 담보부족 농가 '그림의 떡'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농가들이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을 사용하고 싶어도 담보부족 등으로 '그림의 떡'이라는데 있다. 이 자금의 금리가 1%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 캐피탈을 통해 신용하나만으로 7.5%의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축산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채 소위 '가진 농가'에만 지원되는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꼴을 초래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FTA 핵심 대책인 만큼 농신보 개선을 통해 이 자금을 원활히 이용할 있도록 함으로써 의욕을 갖고 축산업을 영위하려는 경영체에 희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비등해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의 축산업 규제를 강화한 '조례'와 민원까지 겹쳐 축사시설현대화를 위한 중개촉에도 어려움을 겪는 차원을 넘어 심지어 포기를 해야 할 상황까지 직면해 있다.

지난 2일 농식품부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생산자단체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농식품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도 혹시 이로 인해 과잉사육이 되지 않을까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부문에 4천8백85억원이 책정됐는데 잠정 수요를 집계한 결과 약 2천500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2월 8일자 축산신문

개정된 동물보호법 본격 시행
동물학대시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지난 5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제가 시행되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시 기존 5백만원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도입·시행된다. 이 제도는 소, 돼지, 닭 등 동물의 타고난 본성에 최대한 가깝게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고기, 계란, 우유 등)에 대해 동물복지 표시를 하는 제도로 소비자는 인증 마크를 통해 동물복지 축산물을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올해 신라계 농장에 우선 적용되며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우·젓소(우유) 등으로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2013년부터는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미등록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해야 하는 동물등록제도가 시행된다.

2월 10일 축산경제신문

애독자
코너

올해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처벌이 크게 강화되어 허위표시 음식점 적발 시 종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올해부터는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위반업체를 신고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최대 2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한우자조금에서도 위반업체 신고율을 높이고자 신고포상금 기준으로 2배의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음식점의 원산지가 의문되거나 신고를 하려면 몇 번으로 전화를 해야 할까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1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이번 달부터는 우편연서 접수도 가능하오니 아래 접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게재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아지 설사 예방약을 드립니다.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1-19 제2축산회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소식지 담당자 앞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1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김상정(전남 고흥군), 유점래(광주 서구), 장병성(경남 거창군),
변규명(경북 청도군), 김영기(강원 철원군), 이용일(충남 홍성군)

인증점
소개

서동한우

전화 : 041-835-7585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118-2



1200평의 목장에서 직접 기르는 농가의 음식점으로 "고기질은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다"고 서동한우 유인신 대표는 자부한다.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생산부터 판매까지 가능하며 양질의 고기를 적절한 가격에 판매한다. 2001년 리모델링을 통해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곳은 단골들이라면 누구하나 가리지 않고 찾고 있다.

부소산성과 낙화암이 인접해 있어 주위의 정취와 수려한 경관을 둘러보고 출출해진 배를 서동한우의 최고급 한우로 저렴하게 채워 본다면 부여를 찾는 길손들의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결 든든할 것이다.

한우자조금

등록번호 114-82-61108

비매품 제8권 제26호 통권 제76호 발행일 2012년 2월 2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_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커피아회관 3층 기획총무부, 홍보마케팅부 Tel : 02-522-4292~3 Fax : 02-522-3605 2층 교육조사부 Tel : 02-522-3607~8 Fax : 02-522-4314 발행처 전국한우협회_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 02-525-1053 Fax : 02-525-1054 디자인 HINCOM Tel : 02-585-0091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암소 사육두수 줄이기’ 한우산업 안정을 앞당깁니다!

- 가임암소가 150만두로 현재 공급과잉 상태이며,
우리가 암소를 줄이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가 지속됩니다.
- 암소 사육두수 줄이기에 적극 동참합시다.
※ 암소 할인판매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